

#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 변화 이끌 수 있길”

●최은애이름봉사나눔대표

### 2019년 비영리단체 설립...30여명 미용봉사 등 활동 푸드·공예 클래스 등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

“우리의 작은 나눔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길 바랍니다.”

최은애(48·여·사진) 이름봉사나눔 대표는 동료들과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이름봉사나눔은 2019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30여명의 직장인과 가족 단위의 봉사자들이 미용 봉사, 재능기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 대표는 22일 “각각 직장과 가정의 있는 사람들이 주말을 쪼개 봉사하는 등 나눔을 통해 서로 행복을 공유하고 있다”며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 중”이라고 웃었다.

지난 2012년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던 최 대표는 학과 동기와 봉사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존 봉사활동에서 느꼈던 아쉬움에 대해 얘기했고, 이후 봉사활동을 지속하면서 단순한 일회성 봉사보다 ‘맞춤형 봉사’가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데 의기투합해 이름봉사나눔을 설립했다.

최 대표는 “우리 단체의 목표는 필요에 맞는 맞춤형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체는 매월 첫째 주 주말 거동이 불편해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계 수리, 정리정돈 등의 봉사도 병행하고 있다.

둘째·넷째 주 주말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을 위한 각각의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짝수 달 셋째 주 주말에는 요양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홀수 달 같은 주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찾아가 푸드·공예 클래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한 봉사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자립에 필요한 생활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밖에도 단체는 연탄 봉사, 명절 음식 나눔, 지역아동센터 생일잔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하고 있다.

최 대표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보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회비와 소규모 후원에 의존하고 있고 봉사자들도 봉사가 가능한 시간대가 달라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지금은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일 년 단위로 일정을 정해놓고 각자의 시간에 맞춰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대표는 “봉사는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활동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곧 단체가 봉사를 계속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학기자

올해 ‘장성군민의 상’ 강이원·김영풍씨 선정



강이원 김영풍

장성군은 22일 “올해 ‘장성군민의 상’ 수상자로 사회복지·체육 부문 강이원(92), 교육·문화·예술 부문 김영풍(86)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성군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명예를 높이는 등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사회복지·체육 부문에 선정된 강이원씨는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으로 1978년부터 현재까지 로터리를 등에서 꾸준한 봉사와 선정을 이어오고 있다. 장성클럽 회장 역임 시 매년 5명의 학생을 선발해 사비로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최근에도 (재)장성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교육·문화·예술 부문 김영풍씨는 장성향교 전교, 전남향교전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장성의 선비문화를 알리는 데 힘써왔다. 장성향교를 중심으로 유교 아카데미, 인문학 교육 등을 운영해 유교 이론 현대화에 일조했다는 평이다.

장성군은 오는 10월 5일 황룡강 황룡정원 상설 무대에서 열리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개막 행사 중 제47회 장성군민의 상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성=김문태기자



## 독일 청년학생들, 광주서 민주역사·문화 체험

독일 함부르크 청년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역사와 문화 등을 체험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화 ‘택시운전사’의 모티브가 된 독일 기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가 활동했던 독일 함부르크지역의 청년학생 17명은 조선대학교 주관 ‘광주-함부르크 청년 교류 프로그램’으로 지난 15일 광주를 찾아 오는 25일까지 머무르며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비엔날레 관람, 무등산 등반 등 민주역사 교육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강기정 시장을 면담하고, 광주의 역사와 현황 등을 설명 들은 뒤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했다.

‘택시운전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취재한 영상을 독일 함부르크 뉴스센터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출신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오월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 역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위해 싸운 세계 모든 이들의 연대와 희망의 상징이다”며 “우리가 함께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청년학생들은 남은 기간 근대문화의 산실인 양림동을 비롯해 동명동·대인시장 등 광주 명소를 둘러보고, KIA 타이거즈 프로야구 경기 관람, 조선대 수업 참여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박선경기자



## 광양영재교육원 ‘창의과학체험학습’ 실시

광양영재교육원은 22일 “지난 19·21일 3일동안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미래과학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학습은 광양영재교육원 자연과학영역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참여 학생들의 호기심과 무한한 발견을 추구하고 과학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체험학습 기간 동안 학생들은 송암스페이스센터, 국립과천과학관, 수원 스타필드, 용인에 버랜드 등을 방문했다.

특히 송암스페이스센터를 견학하며 케이블카, 천문대 등 여러 부대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했으며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과학의 실제적인 응용과 현대 기술의 발전을 체험했다.

김여선 광양영재교육원 교육장은 “이번 체험학습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학 지식과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과학·미래기술과 관련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춤 페스티벌’ 성료

전국 다문화가족의 끼와 열정의 무대인 ‘제10회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춤 페스티벌’이 지난 21일 영광 상사화축제장에서 열렸다.

전남도와 영광군이 공동 주관한 모국춤 페스티벌 행사에는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 이개호·서왕진 국회의원, 오미하·박원종 전남도의원, 김강현 영광군의회 의장, 영광군의원, 강현덕 한국가족센터협회장, 이정문 전남가족센터협회장,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참가자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시도 10개 팀 총 7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전통춤과 독특한 문화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 공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심사 결과, 캄보디아 결혼이민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광주시 아시아인권문화재단의 ‘쿠엣트랄옥탑’이 대상을 차지해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금상은 광양시가족센터의 ‘내사랑 인도네시아’로 전남지사상과 함께 200만원의 상금을, 은상은 전북 군산시가족센터의 중국 ‘물란댄스팀’으로 영광군수상과 200만원의 상금을 각각 받았다.

동상은 울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아름다운 몽골여성팀’으로 한국가족센터협회장과 15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이제 더 이상 다문화가족은 이방인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이라며 “모국춤 페스티벌이 모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국립목포해양대 ‘당진항 Visiting Day’ 개최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최근 이틀간 충남 당진시와 함께 당진항 고대부두에서 당진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당진항 Visiting Day’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진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립목포해양대 실습선과 서광철 입학처장 및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당진시 소재 고대중학교, 순성중학교, 합덕중학교 등 3개 학교 재학생과 인솔 교사 등 180여명도 함께 했다.

해당 행사는 국립목포해양대 입학학생처의 대학입시·진로교육을 비롯해 실습선 세계로호 선내 견학, 항해 시뮬레이터 체험, 포토존 기념



촬영,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정복 입어보기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목포=정해선기자

## 해남경찰, ‘일단 멈춤, 아이 먼저’ 교통안전 캠페인

해남경찰서는 “최근 인형주 서장이 해남읍 서초등학교 통학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배려하는 운전문화를 확립하고 안전한 통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남경찰서를 비롯해 해남군청, 해남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안전자회 등 민·관·경 5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구호를 내세워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춰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문구가 새겨진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각종 팸플과 현수막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인형주 경찰서장은 “운전자·어린이 모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겠다”며 “안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 농협 담양군지부-담양군, 쌀 소비 촉진 ‘맞손’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와 담양군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이병노 담양군수, 최창기 고서농협 조합장, 김상용 금성농협 조합장, 김법진 담양농협 조합장, 최홍규 대전농협 조합장, 나승수 무정농협 조합장, 박오진 봉산농협 조합장, 양남근 수북농협 조합장, 박대식 창평농협 조합장, 홍성용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쌀값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업인들의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이병노 군수는 “군청 공직자 담양쌀 사주기, 매주 수요일 담양쌀 먹는 날, 향우회원 담양쌀 사주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쌀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내 농협과 협력해 더 효과적인 소비운동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여수시보건소,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

여수시보건소는 “최근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병문안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여천전남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이 참여했으며, 병문안객과 환자, 의료진 간 감염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확인하기(방문 가능 시간, 허용 인원, 장소) ▲자제하기(감염성질환자·노약자 방문 자제) ▲지켜주기(병문안 전후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병문안 3대 원칙을 병원 방문객에게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여수=김진선기자

## 부음

▲김병훈씨 별세, 김경태(광주대 대외협력처장·전 광주은행 부행장)·경호·경훈(상무부원 총무부장)·숙경씨 부친상, 백태신(남향레미콘 이사)씨 장인상=발인 23일(월) 오전 9시 30분 광주 V IP장례타운 301호실(062-521-4444).